

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



• 코로나19가 없었던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고 계신 모든 의료진과
지방공무원 여러분, 자원봉사에 나서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을 담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발간사



역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일상을 깨뜨린 지 6개월을 지나 1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역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터널 속에 있지만,
코로나가 없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최종 백서와는 다른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반년 동안 수원시가 해왔던 상황별 대응방법을 읽기
쉽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에 더 나은 대응방안을 만드는 작은 영감을 드리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중간점검과 반성의 성격을 담고자
했습니다.

진심은 서로 감지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가장 건강한 도시의 이름이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8.

수원시장 임태영

01

기초지방정부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01.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6개월	008
02. 코로나19 발생현황	012
03. 국내/수원시 코로나19 타임라인	020
04.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024
05. 수원시의 대응기조	028

02

수원시의 대응, 수원형 매뉴얼

01.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036
02. 매일 아침 일일상황보고회	042
03. 선별진료소, DRIVE-THRU 선별진료소 '수원안심카'	048
04.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 물품	058
05.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 임시생활시설	062
06. 공항부터 자택까지 '수원형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	068
07. 이웃도시와 감염병 공동대응	086
08.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 대응	088
09. 감염병 취약시민을 먼저 챙긴 포용적 마스크 지원	094
10. 사회적 거리두기	112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

11.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120
12. 역병의 연결고리를 끊다. 소독	128
13. 수원시민 모두에게 수원시재난기본소득	144
14. SNS 소통	150
15. 역학조사	156
16. 현장인터뷰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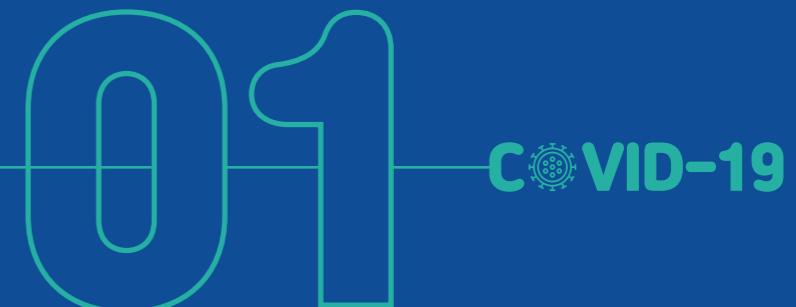
04

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

208

기초지방정부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 01.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6개월
- 02. 코로나19 발생현황
- 03. 국내/수원시 코로나19 타임라인
- 04.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 05. 수원시의 대응기조



01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6개월

영화에서나 본듯한 공포스러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지구촌을 경악하게 했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심지어 국민들의 모임까지 국가에서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장기화 된 코로나 사태는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 전부를 흔들었다. 마스크 대란, 등교 연기와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자가격리, 재난기본소득, 대면접촉 금지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곳곳을 헤집어 놓았다. 공포의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있는 혹독한 2020년이다. 일상으로 복귀를 갈망하는 모두의 염원을 담아 수원시에서 펼친 코로나19 대응 6개월을 되짚어 봤다.

1. 권한 없는 기초지방정부,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염병 차단 총력

예고 없이 들이닥친 신종 바이러스는 모두를 당혹케 했다. 초기에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불일치가 생길 때가 많다. 특히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침들은 현장의 디테일을 담아내지 못해 부실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과 현실에 맞는 대책이 절실했다. 모호한 지침에 살을 붙이고 다듬어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현장 매뉴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현재 모습이다.



2. 지역사회 모든 자원의 올인

기초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여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했다.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의료계, 시민사회와 합심해 거버넌스로 돌파구를 찾았다. 의사가 부족할 때는 지역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적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원정대'를 구성해 공장을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구했다. 정부재난지원금,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접수, 빠른 지급을 위해 수원시 공직자, 협업기관, 청년인턴 등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500여 명이 투입되었고, 감염 위험성 때문에 소독 전문업체 마저 거부한 확진자 주택 내부 소독을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했다.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동 단체원들이 약국 자원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보건소 구급차량이 부족할 때는 소방서 119차량으로 유증상자를 수송했고, 자가격리 이탈자 대응은 경찰에서 지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재봉틀로 천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증했으며, 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운동에 동참했다.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제1막'격인 6개월을 헤쳐왔다.

3. 설 연휴 기간 임시 선별진료소 마련, 시민 불안감 해소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수원시는 1월 22일 T/F를 구성하고 설 연휴 기간에 각 보건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꾸렸으며, 전화상담을 지원했다.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부터 국내 발생 상황을 알리며 막연한 불안감 해소에도 노력했다. 시작부터 가장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했다. 1월 28일부터는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경계' 단계부터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총력대응을 펼쳤다.



4. 생활치료시설의 모티브가 된 임시생활시설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공개하고 1차 접촉자를 격리해야 한다. 여러 명의 가족이 같은 집 한 공간에서 방만 따로 해 접촉을 피하면서 자가격리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방은 따로 쓴다 하더라도 화장실과 주방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사람씩 별도로 격리시설에 입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임시생활시설의 운영 배경이다. 수원유스호스텔의 모든 대관(예약)을 해지하고, 시설에는 없는 TV, 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방마다 설치했다. 2월 1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초지방정부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의 가족 간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기원이 됐고, 타 지방정부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 가족의 자가 격리 외에도, 퇴원한 확진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2주간 격리 생활하는 기능(감염병 재발 가능성 염두)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 시민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다음날 진단검사 전까지 임시 기거하는 기능 또한 겸하고 있다.

5. 지역형 해외 입국자 관리 시스템 모델 마련

임시검사시설



3월 초 해외 입국자로부터 감염사례가 급증했다.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무증상자는 바로 지역사회로 흡수됐다. 무증상 확진자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거리두기가 필요했다. 수원시는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협조받아 해외 입국자 용도로 활용했다. 입국하기 전 예약한 시민과 공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수송하여 검체 검사 후 음성인 경우만 귀가토록 했으며, 귀가 시에도 가지 접촉자 없이 귀가토록 지원했다.

 안심귀가 - 공항에서 자택까지 접촉자 최소화



임시검사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 중 자택(자가격리장소)까지 즉시 귀가를 원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수원공항버스정류장에서 자택(자가격리장소)까지 수원에서 마련한 택시로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은 진단 검사 없이 귀가한 것으로, 3일 이내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해야 한다.

 안심숙소 - 해외입국자 가족과 대면접촉 원천차단



해외입국자의 2주 의무 자가격리를 위해 가족들이 집을 비워줄 수 있도록 가족들의 호텔 숙박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었다. 해외 입국자가 자택에 도착하기 전 가족들은 호텔에 체크인하게 되므로 입국자와 가족간 대면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6. 소규모 집단감염 대처 -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관련자 일체 모니터링

교회를 비롯해 소규모 지역감염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상황을 종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역사회 2,3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다.

수원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 중 S교회의 경우 집단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교회 폐쇄와 소독, 모든 신도의 명단 확보와 신도의 가족까지 모니터링하여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170여 명 전원을 3일 만에 진단검사했다. 신속한 판단,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막는 열쇠가 됐다.

7. 마스크 대란을 벼텨낸 원동력 – 발품, 진정성, 시민

코로나19 대응 초기. KF94 마스크는 극심한 품귀 현상을 빚었다. 모두가 마스크를 구하려 했고, 줄을 서서 오랜시간 기다리는 일부 시민들만 마스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있다는 점이었고, 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지원할 최소수량의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었다.



02 코로나19 발생현황

1. 전세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염 확산이 일어났고, 2월 13일 중국 일일 확진자 발생이 15,166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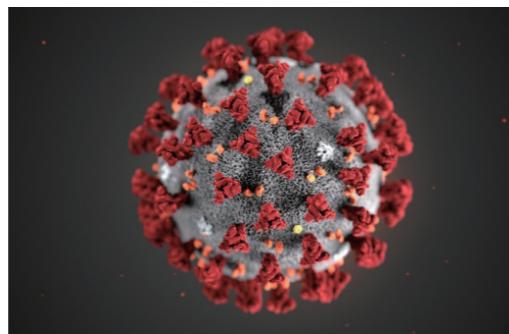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에서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중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소폭 확산되던 코로나19는 2월 말이 되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3월 초부터는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WHO에서는 3월 11일 팬데믹(Pandemic)¹을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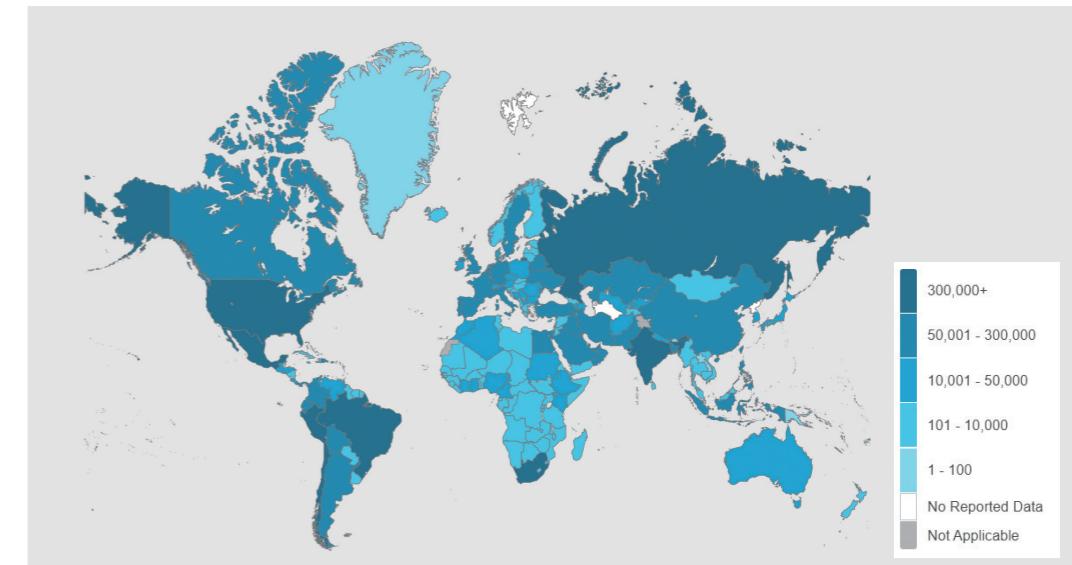
3월 중순부터 꾸준히 확진자가 증가하던 미국에서는 4월부터 1일 2만~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4월 말부터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브라질과 러시아의 확진자 증가로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고 동부지중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월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6월 중순부터 하루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7월 2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132,718명이며, 사망자는 599,550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183명, 치명률은 4.2%이다. 국가별 확진자 발생순위는 미국(3,698,209명)>브라질(2,074,860명)>인도(1,038,716명)>러시아(765,437명)>페루(349,500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칠레(1,755.7명)>미국(1,123.7명)>페루(1,062.3명)>브라질(976.9명)>싱가포르(807.7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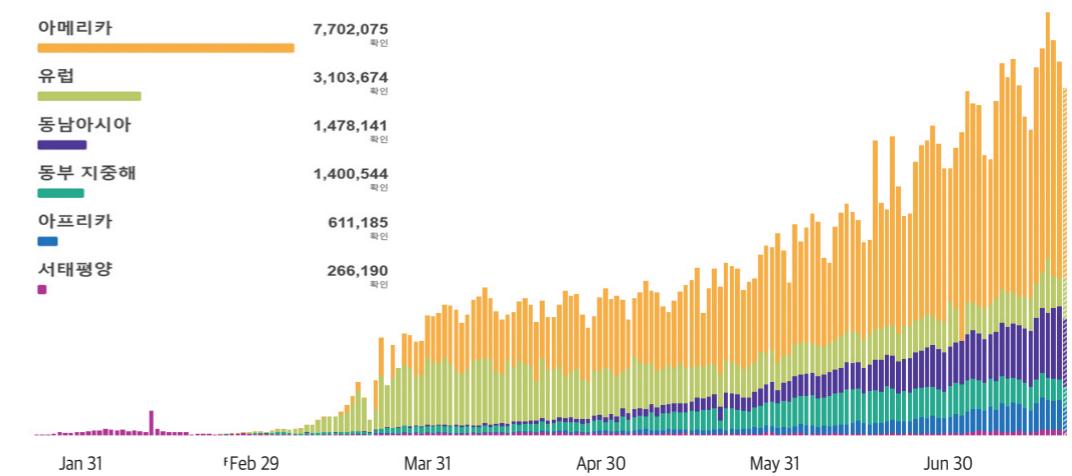
[사진출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출처 :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7월 20일 기준 국가별 사망자는 미국(139,960명)>브라질(78,772명)>영국(45,273명)>멕시코(38,888명)>이탈리아(35,042명)순으로 나타났으나 치명률은 영국(15.4%)>이탈리아(14.3%)>멕시코(11.5%)>스페인(10.9%)>중국(5.5%)순으로 나타났다.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정체불명의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19는 지구상 모든 국가로 확산되었고, 1,400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50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있다.



1)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으로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발생하는 유행병과는 달리 두 개 대륙 이상의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말함.

2. 국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고열 등의 증상으로 공항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1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월 중순부터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집단감염 발생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1일 한 자릿수 발생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2월 18일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시작되었다.

2월 28일 국내 1일 확진자 발생이 813명으로 최대 고점

2월 18일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 발생은 2월 28일 하루 동안 813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국내 코로나 19 발생 이후 1일 발생건수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집단감염과 관련된 고위험군 전수조사 및 진단검사가 실시되면서 감염차단에 나선 결과 점차 확진자 발생이 줄었다.

4월 19일부터 확진자 발생은 하루 10명 전후로 감소하며 안정세를 찾아가던 중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생활방역지침이 완화되었던 5월 초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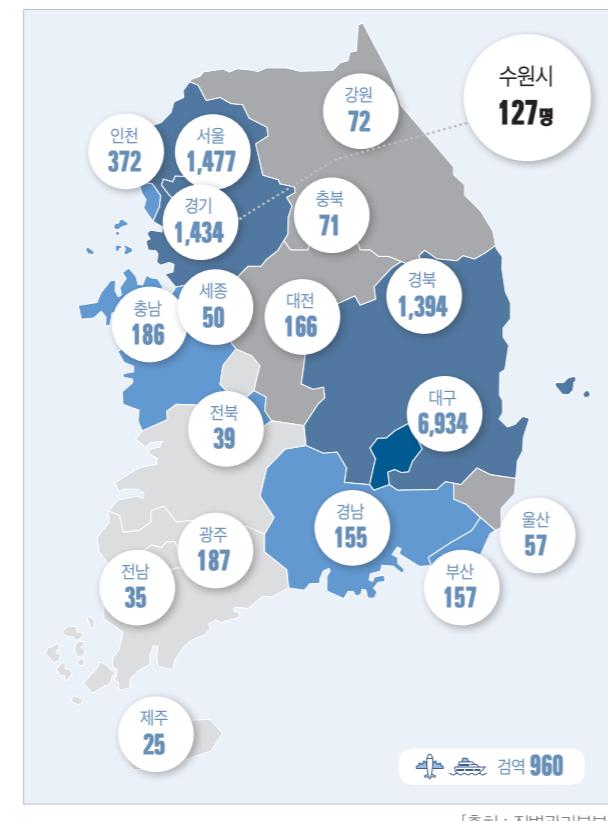
5월부터 클럽, 주점, 코인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시작되었고

6월부터는 물류센터, 다단계 판매업체,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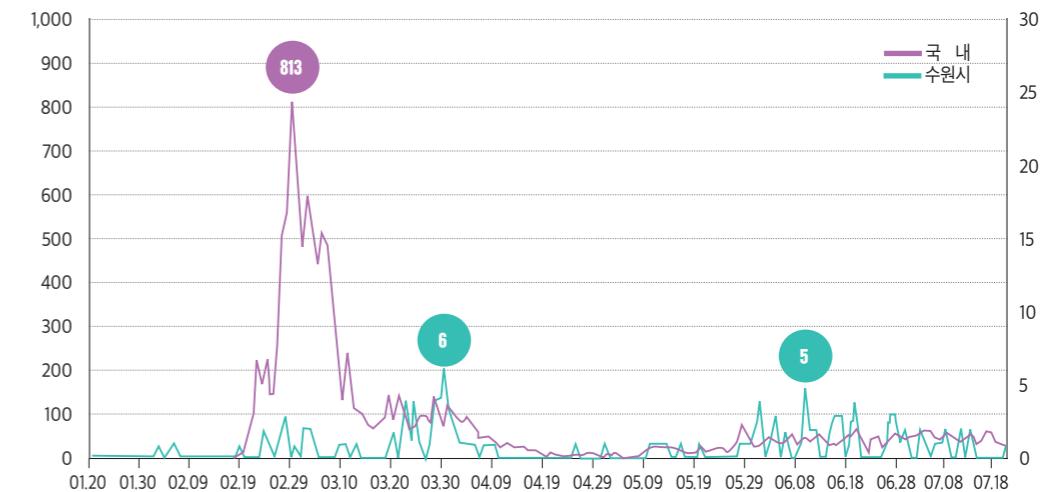
7월 20일 0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771명이고 이중 격리 해제자는 12,572명, 사망자는 296명이다.

- 인구10만명 당 발생자수 : 26.6명
- 치명률 : 2.2%

7월 20일 기준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국내·수원시 확진자 발생현황



2월 2일 수원시 첫 확진자 발생

수원시 첫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으로 확진자와 비행기를 동승하면서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 격리자였다.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되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2월 2일 확진자로 진단되었고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가족 2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이후 국내 대구 중심 특정 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확진자가 4명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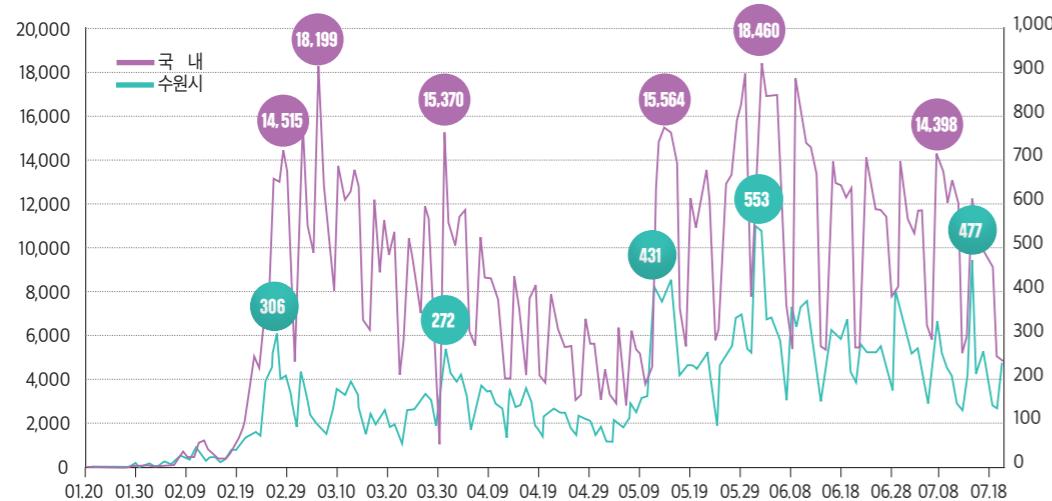
3월~4월 해외입국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일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3월 30일 발생한 확진자 6명 모두가 해외입국자였다. 해외입국자로 인한 확진자 발생은 4월까지 지속되었고, 해외입국자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진단된 검역 확진자도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5월부터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5월 초 이태원 중심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긴장상태로 돌아섰다.

6월에는 5월 말에 시작된 교회관련 집단감염과 다단계판매업, 운동시설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해외입국자 감염도 꾸준히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잠시 감소했던 진단검사는 위험지역 방문자 및 확진자 접촉자 증가로 5월 중순부터 다시 증가했다.

7월에는 확진자 발생이 감소추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인시설, 교회, 군대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었다.

| 국내, 수원시 진단검사 추이



확진자와 접촉자 증가에 맞춰 진단검사 추이도 달라졌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잠시 감소했던 진단검사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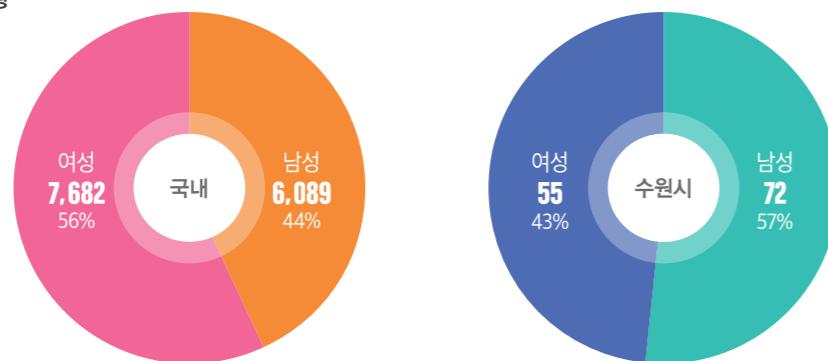
5월초 진단검사 건수는 일일 국내 5,000건, 수원시 10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클럽, 주점 방문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학교 순차적 등교로 유증상자 진단검사가 증가하면서 국내와 수원시 모두 진단검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는 6월 2일 18,460건, 수원시는 6월 1일 533건으로 1일 진단검사 최대치를 기록했다.

01. 국내, 수원시 확진자 일반현황

[7월 20일 기준, 확진자 / 국내 n=13,771명, 수원시 n=1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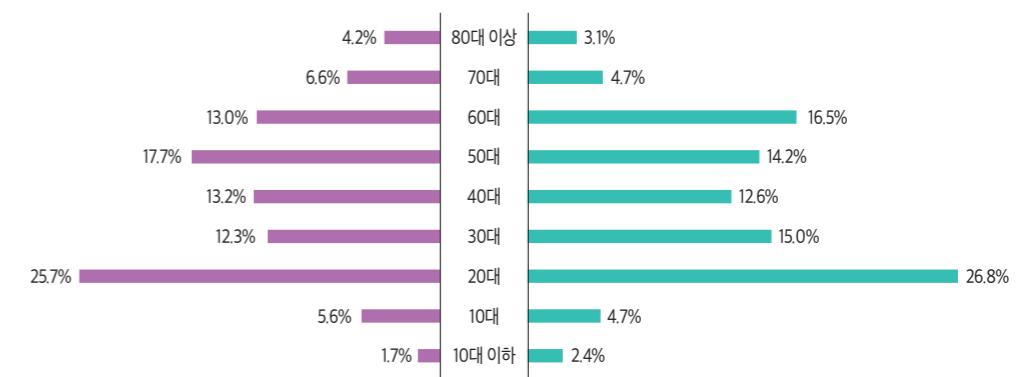
| 성별현황



국내 확진자 성별분포는 여성 7,682명, 56%, 남성 6,089명, 44%로 여성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확진자 성별분포에선 남성 72명, 57%, 여성 55명, 43%로 남성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성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대구지역 중심 특정 종교 예배참여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여성 접촉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연령별 확진자 비율



국내

수원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내 발생의 경우 20대가 3,539명, 25.7%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수원시도 전체 확진자 127명 중 20대가 34명, 2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내는 50대(17.7%)>40대(13.2%)>60대(13%) 순으로 나타났고, 수원시는 60대(16.5%)>30대(15%)>50대(14.2%)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수원시 연령별 확진자 현황

구 분	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국 내	13,771	239	764	3,539	1,688	1,821	2,439	1,788	911	582
수원시	127	3	6	34	19	16	18	21	6	4

02. 지역별 발생현황

국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전체 확진자 중 54.2%에 해당하는 6,934명이 발생했다. 이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종교와 관련된 집단감염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시(1,477명, 11.5%)와 경기도(1,434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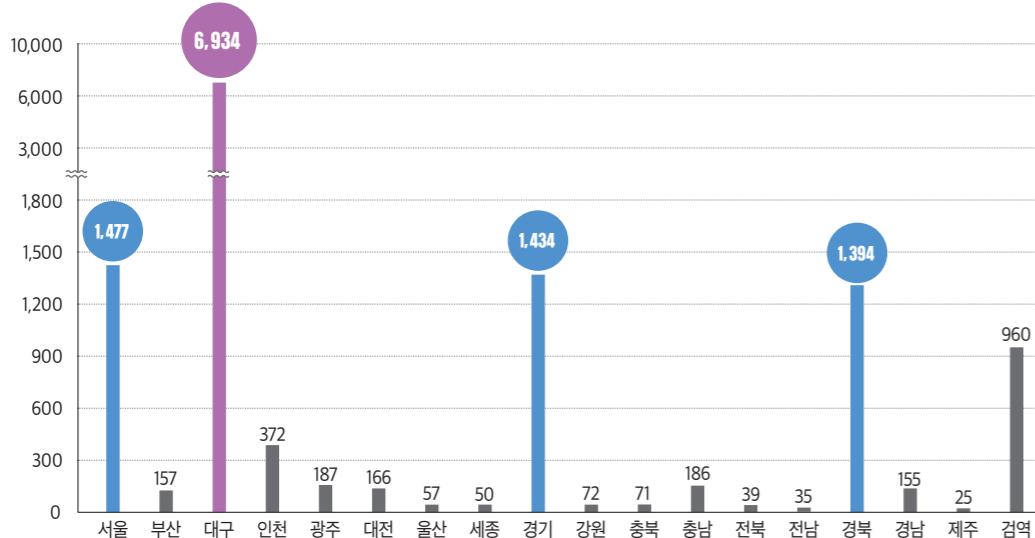
서울과 경기지역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가장 많았고 종교관련 집합예배와 관련된 소규모 집단

감염과 콜센터, 요양시설, 병원 내 감염이 주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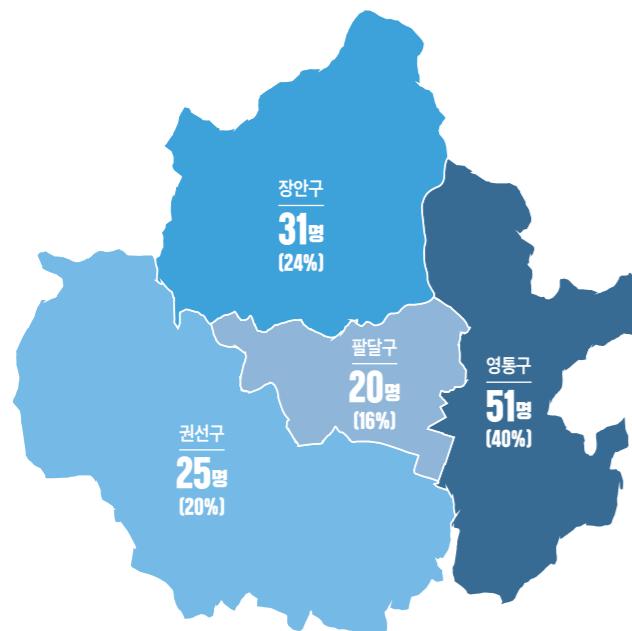
5월부터는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방문자와 물류센터, 다단계 판매, 실내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종교관련 소모임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국내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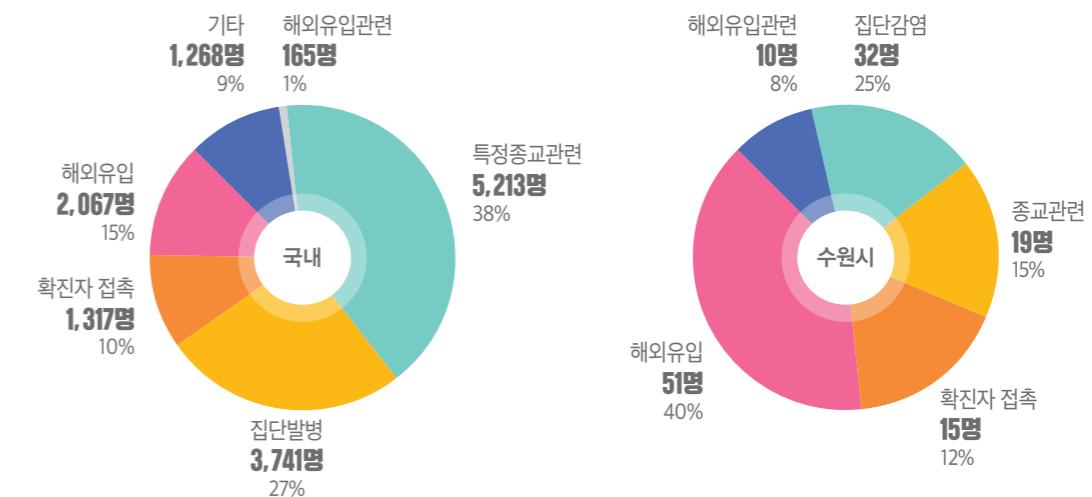


| 수원시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



수원시 지역별 확진자 발생현황은 영통구(51명, 40%)>장안구(31명, 24%)>권선구(25명, 20%)>팔달구(20명, 16%) 순으로 나타났다. 영통구가 전체 127명중 51명, 40%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로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03. 감염 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특정종교관련(5,213명, 38%)>집단발병(3,741명, 27%)>해외유입(2,067명, 15%)>확진자 접촉(1,317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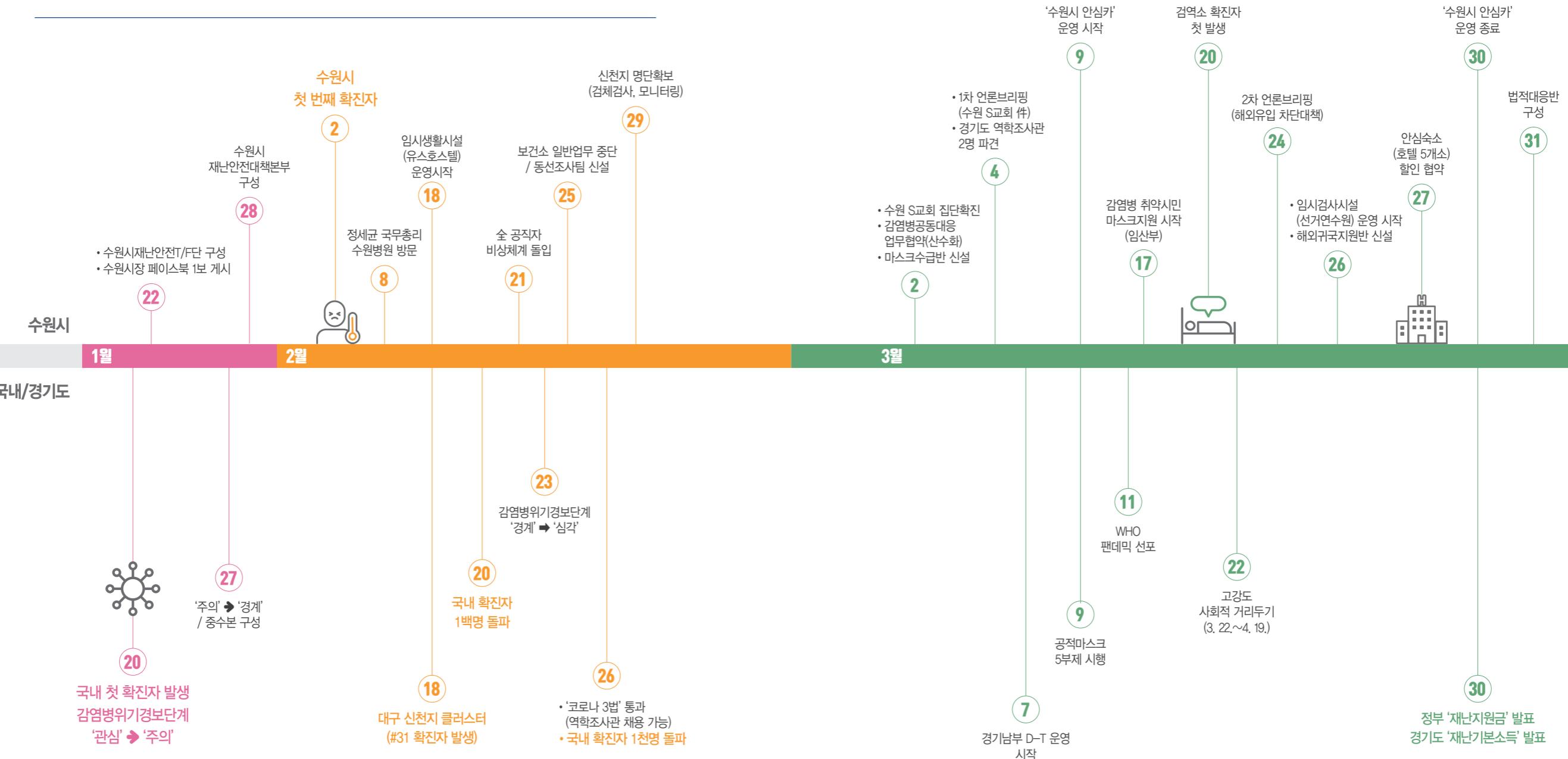
수원시는 해외유입(51명, 40%)>집단감염(32명, 25%)>종교관련(19명, 15%)>확진자 접촉(15명, 1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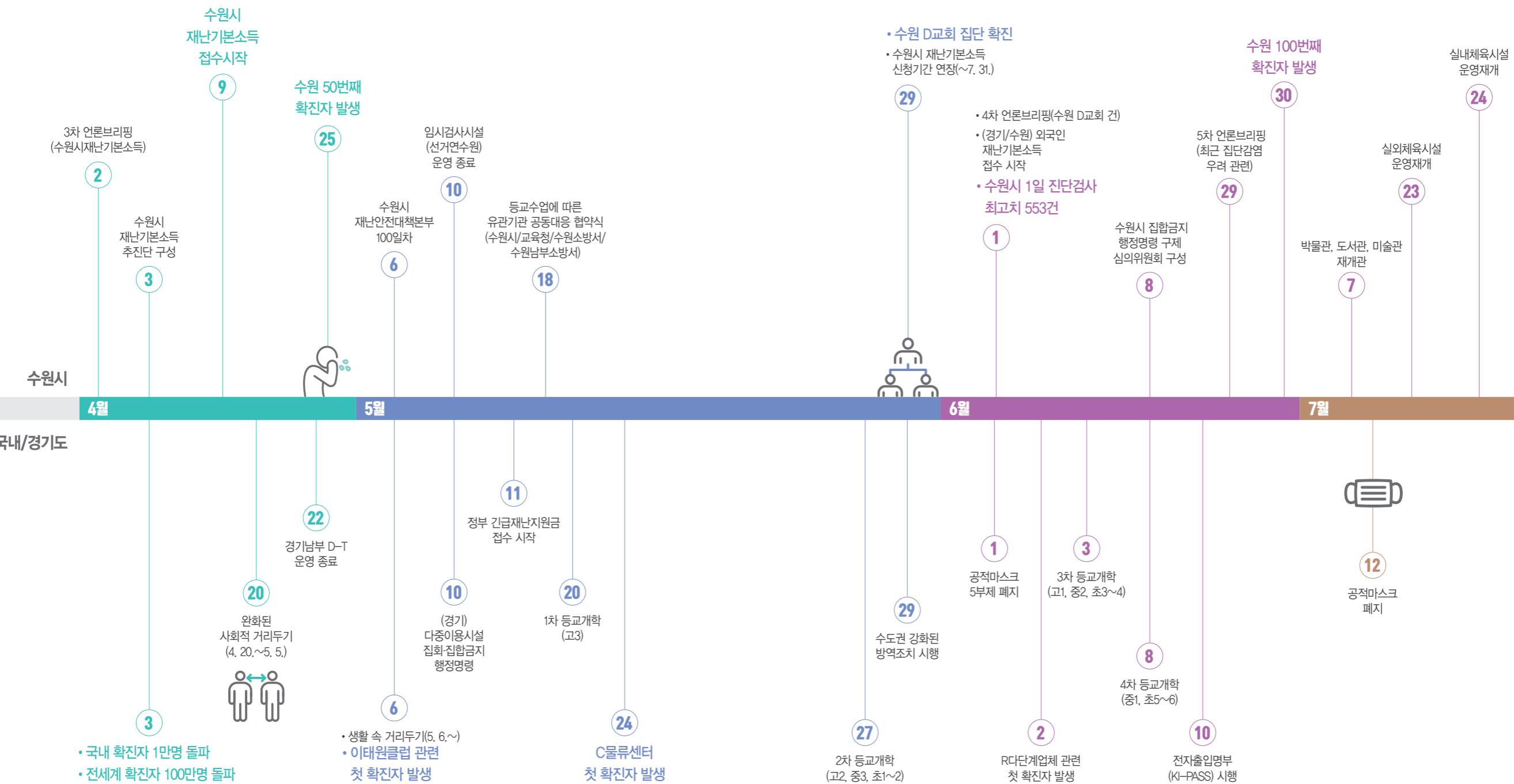
국내는 특정종교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수원시는 해외유입과 해외유입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전체 확진자 127명중 61명으로 48%를 차지했다.



여름 무더위에 땀 흘리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팔달구보건소)

03 국내/수원시 코로나19 타임라인





04 기초지방정부의 역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지침, 바뀌는 역할

질병관리본부(중앙),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각각의 역할 중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광역지방정부)와 시·군·구(기초지방정부)의 역할구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상황은 수시로 변했고, 역할구분도 바뀌었다.

1. 기초 / 광역 역할구분



* 아래 광역/기초 역할구분은 일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수록된 '기관별 임무' 표를 임의로 광역과 기초로 나눠서 기재했으며, 대응상황에 따라 추가한 것임.

(지침에는 시·도와 시·군·구의 구별 없이 나열)

시·군·구	시·도
시·군·구 재대본 운영	시·도 재대본 운영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시·도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자체 역학조사관 운영 시·군·구) 확진자 발생시 자체 역학조사 실시, 자체 판단에 의한 동선 공개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관 시·군·구 파견, 즉각대응팀 구성·활동 – 확진자 동선,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 – 동선 공개사항 결정
(역학조사관 미보유 시·군·구) 시도 역학조사관에 의한 역학조사, 시·도 역학조사관 결정에 의한 동선 공개	
시·군·구 자체 임시검사시설 조성·운영	지역 내 거점 격리병상·시설 관리
시·군·구 자체 임시생활시설 조성·운영	지역 내 거점 임시생활시설 조성·운영
지역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겸체채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구 겸체검사 수탁기관에 겸체검사 의뢰	보건환경연구원(시·도 단위 겸체검사) – 시·군·구 의뢰 겸체검사 실시, 결과 통보
시·군·구 자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시·도 거점지역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시·군·구 실정에 맞는 해외 입국자 지원 – 안심귀가, 시설입소, 겸체채취 등	시·도민 해외 입국자 지원(차량·인력 지원 등)
방역업무 중심 보건소 기능개편, 인력 보강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
지역 방역소독, 환자 이송,	환자관리반 운영
예산상황에 따라 시·군·구 자체 지원,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선별적 재난수당 지급
시·군·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시·도 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유관기관(경찰·소방·의사회 등) 협력체계	중앙·광역(시·도) 실무협의체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등 합동 점검 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계도, 행정명령	사회적거리두기, 시·도 및 시·군·구 합동점검
언론대응, 주민과 ON/OFF LINE 소통	언론대응, SNS소통
시·군·구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 예방물품 관리·배포 자가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수급관리,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휴원·휴관 결정 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예방적 코호트격리 참여 독려·관리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 지원 자가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지원 연계 인접 시·군·구와 감염병 공동대응 착한 임대료 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등	시·군·구 긴급예산 지원

2. 코로나19 대응 수원시의 역할정리

재난안전 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대본 구성운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정비 각종 회의 주재 지시사항 시달, 조치결과 보고 자체 역학조사반(팀) 운영, 동선 공개사항 결정 긴급재난문자 발송 각종 통계 및 현황자료 작성·관리 유관기관·단체(경찰, 소방, 의사회) 감염병 공동대응 	자가격리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문 배부 유선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모니터링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생필품, 위생기트 지원 자가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접수, 지원 자가격리자 심리상담 지원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긴급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국·도비, 기관공동경비 현장 지원 	마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대본 내 '마스크수급반' 운영(마스크수급 총괄) 공적 마스크 배송지원(차량, 인력 지원) 약국별 공적마스크 판매시간 인력지원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방문, 마스크 구입(마스크 원정대) 사회적 약자, 감염병 취약시민 마스크 지원 자원봉사센터 천마스크 제작, 마스크 기부 캠페인
선별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선정 보건소별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드라이브스루 및 워크스루형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검체 채취, 진단검사 의뢰 확진자 이송 	입국 유학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대학교와 협력체계(협약) 학교별 학사일정 파악, 유학생 명단 확보 공항 ▶ 학교 셔틀버스(관용버스) 지원 1일 1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학교별 방역 지원
대시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전용 홈페이지(市 홈페이지내 별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선공개, 카드뉴스, 통계·그래프, 방역지도 게시 시 대표 SNS 채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선공개, 일일상황보고, 각종 정보 게시, Q&A 운영 지역 SNS커뮤니티(맘카페) 게시글에 댓글로 소통 유튜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대본 일일상황보고, 외국어버전 일일상황보고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대본 내 '감염병대응반' 및 '방역지원반' 설치·운영 매주 수요일 '집중 방역의 날' 운영 주민·소상공인 방역장비 공유, 소독액 지원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자료 작성, 배포 기자브리핑(기자회견) – 기간 중 5회 개최 언론모니터링, 가짜뉴스 대응 	의료인력 생활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인력(의사·간호사), 경기도 파견 역학조사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숙소 제공(수원호스텔 활용)
밀접접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생활시설 설치·운영(수원유스호스텔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진자의 접촉자, 퇴원한 확진자 입소(2주간 격리생활) 필요시 견체채취(생활시설 ↔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송지원) 도시락 지원, 의료·생활폐기물 수거 TV, 인터넷 등 생활 편의 지원 	오프라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교 부착 플래카드(손씻기 등 예방캠페인) 플래카드 게시대 홍보(외국어버전 병행) 홍보 전단(외국어버전 포함), 포스터
해외입국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검사시설 설치·운영(선거연수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 임시검사시설 셔틀버스(콜밴) 운용 임시검사시설 도착 후 견체채취, 검사의뢰 검체결과 통보 시까지 임시생활(6시간~1박2일) '음성' 판정 ▶ 귀가 / '양성' 판정 ▶ 격리병원 이송 시설 입소 기간 생활지원(도시락, TV 등 편의제공) 임시검사시설 미입소자 '안심귀가' 지원(무료 택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 道리무진버스 ▶ 수원 하차, 택시 환승 ▶ 귀가 해외입국자의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자 가족에게 호텔 숙박비 40~70% 할인 	예방물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N95, KF급, 덴탈마스크, 손소독제, 소독물품, 보호복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소상공인 지원(중앙, 광역 정책 연계) 동선공개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착한 임대료 운동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 캠페인 전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각종 시설 휴원·휴관 결정 어린이집 긴급보육,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식사 지원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코로나19 현장 연계 유관기관 의료거버넌스
		재난기본소득 (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대본 내 재난기본소득추진단 설치·운영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속거리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이미지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다중이용시설, 유흥·위생·숙박업소, 종교시설 등 현장점검 및 계도
		제도개선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재고분 기초지방정부 매입 허용 기초지방정부 확진자 동선 공개권한 부여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 손실보상 예산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 자체역학조사관 채용 및 사전역학조사 권한 부여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예산지원 검토

05 수원시의 대응기조

1. 수원시 감염병 대응기조 : 신속대응, 과잉대응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늑장대응, 소극대응보다 신속대응, 과잉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현재까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다. 특히 수원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설치 운영했던 확진자의 접촉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해외입국자의 검체검사를 위한 '임시검사시설', 해외입국자의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1단계 중국입국 확진자 지역사회 감염 차단 : 차단과 봉쇄

- 1. 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부터 SNS 대응 시작
 - 수원시장 페이스북 : 2020. 1. 20.~6. 30.까지 496보 게재
 - 수원시 7대 SNS 계정 : 102,705,372회 접속
- 1. 22.『수원시 재난안전 T/F단』구성
 - 설 연휴 기간 4개 보건소 및 4개 대형병원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완료
- 1. 27. 감염병위기경보단계 '주의'에서 '경계' 상향 조정
- 1. 28. T/F단 해체,『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시작
- 2. 5.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력 확충



2단계

대구 특정 종교시설발 지역사회 감염차단 : 조기발견과 격리

- 2. 18. 대구 #31 확진자 발생
- 2. 18. 확진자 급증 대비, 밀접접촉자 2주 격리 생활 '임시생활시설' 운영 시작
- 2. 23. 감염병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
- 2. 23. 선별진료소 모든 검체 채취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 ※ 질본 지침에 없는 사항, 진단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택 대기 요구
- 2. 24.~2. 27. 중국유학생 수송
- 2. 25.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 시 재대본 내 '역학조사반' 신설
- 2. 27. 시 재대본 내 '방역지원반' 신설
- 3. 2. 수원-화성-오산 감염병 공동대응 상생협약
- 3. 2. 시 재대본 내 '마스크수급반' 신설
- 3. 2. 수원지역 교회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 - 전수조사, 전수모니터링
 - 해당 교회 시설폐쇄 ▶ 예배 참여자 전수 진단검사 ▶ 모든 신도 증상여부 매일 모니터링
 - 3. 4. 본 교회 대응사항에 대한 수원시장 언론브리핑
- 3. 9. '수원시 안심카'(市 자체 DRIVE-THRU) 운영 시작
- 3. 9. 공적마스크 배송지원 및 개별약국 인력 지원 시작
- 3. 11. 수원-용인 감염병 공동대응 상생협약
- 3. 11. 매주 수요일『구·동 집중 방역의 날』운영 시작
- 3. 17.~3. 18. 마스크 원정대
- 3. 22.~4. 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해외입국 무증상 확진자 대응 : 지역사회와 거리두기

- 3. 24. 해외 감염 차단방안 발표 – 수원시장 2차 언론브리핑
 -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 시스템 발표
- 3. 26. 시 재대본 내 '대학지원반' ▶ '해외귀국지원반' 명칭 및 기능 개편
- 3. 26. '임시검사시설' 운영 시작
 - 무증상 해외입국 수원시민 진단검사, '음성' 시 귀가
- 3. 27. 수원시 내 5개 호텔과 '안심숙소' 협약 체결
 - 해외입국시민 자가격리 시 가족들의 임시 생활을 위한 호텔숙박료 할인
- 3. 28. 안심귀가 서비스 시작(동수원 공항버스 정류장 ▶ 자택까지 대형택시 지원)
- 3. 31. 시 재대본 내 '법적대응반' 구성
 - 자가격리 이탈자 총괄 대응

- 4. 2.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발표
 - 수원시장 3차 언론브리핑
 - 수원시민 1명당 10만원 지원
- 4. 3.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추진단' 조직 구성
- 4. 9. 수원시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 시작
- 4. 9. 수원시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운동' 전개
- 4. 20. 수원시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보고회(출구전략 논의)
- 4. 20. 수원시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접수 시작

4단계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 : 방역강화 조치

- 무증상 감염자까지 파악, 신속한 진단검사, 관련자 전원 모니터링
- 2차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 수립, 워크스루형 선별진료소 도입
- 5. 6.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시작(용인시#66)
 - 재난안전문자 발송(이태원·홍대 방문자 검체 검사 독려), 1,321명 검사
- 5. 10.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 시 관내 유통업소 등 점검 시작
- 5. 20. 1차 등교개학(고3) / 5. 29. 2차 등교개학(유치원, 초1,2, 중3, 고2)
 - 등교개학 전 '집중 방역의 날' 운영(학교, 통학로, 학원가 집중 소독)
- 5. 29. 수원시 영통구 종교시설 집단감염 발생(수원#57)
 - 5. 30. ~ 6. 5. 예배참석자 311명 전원 진단검사(확진 8명 발생)
-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발생
 - 상황발생 시 대처
불특정 다수 접촉 : 재난안전문자 발송, 접촉시민 검체검사 요청
소규모 그룹 내 감염 : 접촉자 전원 집단검사 실시, 2주간 모니터링



수원시 5~6월 중 집단검사 현황

대상자	검사기간	진단검사(명)			비고
		계	양성	음성	
	계	2,561	21	2,540	
이태원 방문시민	5. 8.~5. 25.	1,321	5	1,316	
수원시 K클럽방문자 방문시민	5. 15.~5. 16.	104	0	104	홍대 감염 추정 확진자 방문
C클럽센터 접촉시민	5. 26.~6. 5.	38	0	38	
수원 D교회 예배 참석자	5. 30.~6. 5.	311	8	303	
영통1동 동행정복지센터	5. 30.~6. 2.	59	1	58	수원#62 근무자
수원 E교회 신도 전원	6. 4.	17	0	17	
서울 R다단계업체 접촉시민	6. 4.~6. 6.	14	3	11	
수원 J내과 근무자 및 방문객	6. 4.~6. 9.	49	0	49	
용인#83 접촉시민	6. 7.~6. 9.	19	0	19	
서울 M다단계업체접촉시민	6. 9.~6. 10.	3	3	0	
수원#72 접촉시민	6. 10.~6. 12.	238	0	238	수원S전자
수원#73 접촉시민	6. 10.~6. 12.	22	0	22	수원S여객
성남 N다단계 접촉시민	6. 10.~6. 14.	3	1	2	
서울 L택배 접촉시민	6. 15.~6. 18.	32	0	32	
수원 S 사우나	6. 19.~6. 22.	59	0	59	
서울 W 교회	6. 26.~6. 27.	28	0	28	
수원 성인정신보건센터	6. 28.	11	0	11	
수원 J 교회	6. 28.~7. 4.	130	0	130	
수원 Y 정형외과	6. 29.~6. 30.	72	0	72	
수원 H 사우나	6. 30.~7. 3.	31	0	31	

